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6

JUNE 2015
vol.06
MONTHLY MAGAZINE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랑

A calligraphic artwork featuring the Korean text '행복을 주는 사랑' (Love that brings happiness) written in a bold, expressive black font. The text is arranged in a vertical, slightly curved layout. To the right of the text, there are four red hearts of varying sizes, connected by a thin black line that curves around the text.

해바라기
공중에서
이상현 쓴다

A small red square seal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calligraphy, containing the artist's name in seal script.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당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 입니까?



What is the priority of your life?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좀 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을 향한 끝없는 도전, 삶의 우선순위 점검부터 시작하자.

무엇이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삶에서 중요한 일은 대개 오늘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급한 일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며, 우리의 시간과 혼을 소옥 빼놓는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급한 일에만 치여, 정작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선순위를 말하기에 앞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들여다 본다. 그는 사회적인 성공이 보장된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사제의 길을 택한다. 사제가 된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인 아프리카 수단에 자원해 교육과 진료, 재건사업을 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그는 한국에 잠시 들어와 건강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수단의 '톤즈마울'로 떠난다. 결국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가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은 선택하기도, 실천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고 있는지. 



다 잘 하려는 생각이 바쁘고 피곤한 삶을 만든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생각 때문에 삶은 바쁘고 피곤하며,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부터 자신의 업무에서, 일상에서, 취미활동, 인간관계 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를 꼽기가 힘들다면 우선 딱 한 가지씩만 생각해보자.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돈, 자원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가?
 철이 지나면 제때 옷 정리를 해야 하듯이, 내 삶도 때때로 정리해보자.

'만나야 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인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족'을 우선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만남을 우선하는지 등이다.
 사실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입을 옷'인지 '버릴 옷'인지 고민하는 것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하다. 주변을 정리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하다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며 배우는 것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제대로 된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다. 예전에는 모든 일을 억지로라도 일정에 끼워 넣고 다 하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됐다. 생각할 시간이 없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무조건 더 열심히 사는 삶,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옳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삶, 바쁜 삶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을까.
 부지런한 재미는 더 피곤하고 바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이상이 생긴 이후,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가끔은, 게으른 배짱이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괜찮다.
 부지런한 재미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1. 나만의 영역을 정의하라. | 일, 가정, 공동체, 자기자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것은 주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네 가지 영역을 정해야 한다. 일이라는 영역은 대다수 사람에게 직업, 즉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다.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면 앞으로 할 일이 여기 해당할 것이고, 아직 학생이라면 다른 직업이 있건 없건 학교가 주된 일의 영역이 된다.

2. 인생을 설명하는 네 개의 원 | 인생의 여러 부분에 각각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한 영역에서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다른 분야에서 추구하는 나의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어느 영역에서든 내 이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이 그린 네 개의 원(삶의 중요한 4가지)을 보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보면 네 가지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덜 충돌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네 개의 원은 삶의 영역들을 더 조화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자극하는 또 다른 도구다.

3. 네 가지 영역의 행복지수 |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네 가지 영역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맞게 실제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삶의 각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목표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자신의 핵심 가치관과 갈망하는 바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닮아 가려는 열망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상황에 따라 끌려 다니지 않고 한 가지 영역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영역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참고 : 에센셜리즘 (그렉 맥커운 저/알에이치코리아)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6월호 vol.06
MONTHLY MAGAZINE, JUNE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서대원 서내과 의원 원장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다'는 말처럼 인술을 펼쳐며 참 의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 의료 행위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토대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웃을 돕는 송파구 거여동 서내과의원 서대원 원장이 그 주인공. 이미 그의 이웃사랑 실천은 송파구 일대 '마천동 슈퍼이커'로 정평이나 있을 정도다. 선한 인상, 따뜻한 말투는 타고난 참 의사로 손색이 없다.



18 지식프라자 - 법률 | 전세계약시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만큼은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부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에 세입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8 Alone, together | '일상과 여행 사이'에서 방황할 때, 캠핑을 떠난다

일상은 답답하고, 여행은 부담스러울 때 떠나는 게 캠핑이다. 캠핑(Camping)은 텐트나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도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자연이 그리울 때, 우리는 캠핑을 떠난다.



42 경제 이슈 | 2015년 하반기 국내의 경제의 흐름은?

글로벌 경제의 상반기 기상도는 흐림이다. 미국 및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경제도 주택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지그재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 국내 경제 흐름은 어떨까? '맑음'을 기록할 수 있을까? 글로벌 주요 변수, 국내경제 전망 및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 상황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적절,한 균형으로 노후설계
- 18 **지식 플라자**
VIP 고객이 물어본 여신세금 BEST 4 전세계약시 보증금 보호 방법 은퇴설계서비스
- 24 **Do! Dream**
삶의 활력 Up, 손재주
- 26 **Anti aging**
명상으로 마음 챙기기
- 28 **Alone, together**
'일상과 여행 사이'에서 방황할 때, 캠핑을 떠난다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고령화에 따른 대만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변화 및 시사점

경제 TREND



- 34 **경제 이슈**
2015년 하반기 국내의 경제의 흐름은?
- 38 **시장이슈**
한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위상, '준(準)안전자산'의 명암
- 42 **부동산이슈**
저금리 시대의 투자대안, 오피스텔 사도 될까?

GLOBAL



- 46 **지구인 이야기**
건강·여행·테크놀로지 즐기는 프랑스 시니어

FUTURE



- 48 **은퇴, 버킷리스트**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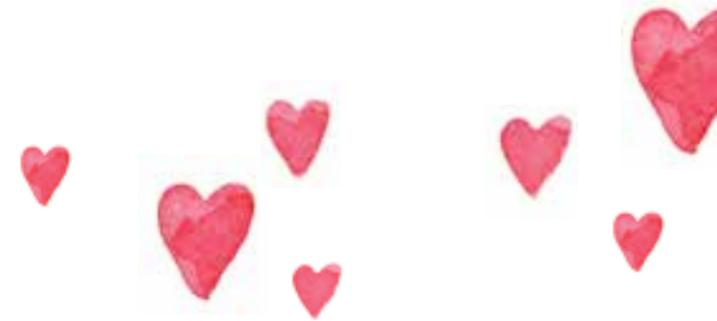
2015년 6월호 vol.06 (통권 6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6월 4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나은행 | 김한성 팀장, 최호재 팀장, 외환은행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서대원 서내과의원 원장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다’는 말처럼 인술을 펼치며 참 의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
본질보다는 의료 행위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토대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웃을 돕는 송파구 거여동 서내과의원 서대원 원장이 그 주인공.
이미 그의 이웃사랑 실천은 송파구 일대 ‘마천동 슈바이처’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다.
선한 인상, 따뜻한 말투는 타고난 참 의사로 손색이 없다.

내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누군가 조금만 나눠 줘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칸칸히 쌓인 계단 앞에서 혼자 끄덕대며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몇 계단만이라도 누군가가 함께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바로 이때 ‘같이 들어드릴까요?’라며 용기 내어 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짐을 함께 들어 준 이는 착한 일을 했다는 보람을 챙기고 도움받은 이는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느껴서 마음 훈훈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함께 사는 재미’가 아니겠는가.

진료비 1,000원 내는 병원

10여년을 한결같이 소외받는 이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며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서대원 원장. 그가 운영하는 내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료비가 1,000원이다. 원래는 무료였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이 많아 1,000원을 받고 진료를 해주고 있다.

“2000년 개원 이후 당시 마천, 하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추운 날씨에 비해 옷을 얇게 입은 스리랑카 사람이 병원에 방문했어요. 독감에 걸려 몸이 말이 아니었죠. 그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진료비를 받을 수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때 서 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금 알게 됐다고 했다.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때 병을 치료하지 못해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된 그로써는 외국인 진료료 면출 수가 없었다고.

“순수함이 가득한 그들은 진료비 대신 저에게 마음을 줬어요.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 ‘신뢰’를 저에게 보여줬죠. 무엇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죠.”

또서 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 특히 ‘청암요양원’에서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10여년 동안 한결같이 돌보고 있다.

“2000년 7월에 의약 분업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청암요양원의 상근의사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우연히 저에게 진료를 받은 어르신께서 제 이야기를 요양원에 하셨고, 촉탁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죠.”

그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요양원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촉탁이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보면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엔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의사가 회진을 돌듯 출근하기 전 매일같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 특심은 요양원 담당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봉사

그의 봉사 활동의 시작은 레지던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지던트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레지던트나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병원 당직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전 그걸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였죠. 당직을 서는 병원에서 우연히 소망의 집으로 무료 진료를 가게 됐어요. 소망의 집은 무의탁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곳이죠. 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재능기부로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의 봉사활동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됐다. 소망의 집 아이들의 ‘간절함 가득한 눈망울’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서 원장은 아직 어린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며 자신 안에 있던 상처, 아픔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힘을 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겠다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추억했다.

작은 재능이 가져온 큰 행복

서대원 원장은 봉사를 위해 어떠한 거대한 다짐, 의지를 발휘한 게 아니다. 그저 사람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만들었다.

봉사에 대해 그는 “큰 희생을 생각하기 쉬운데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등 처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봉사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즐거운 일이라고.

특히 없던 능력도 생겨나는 기적(?)도 일어난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못했던 그도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봉사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 하는 등 없던 마케팅 능력도 생겨났다고 한다.

“봉사는 성격에 나오는 오병이처럼 조금씩 나누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사회적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재화입니다.”

엄청난 그 뭔가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 사회에 작고 소소한 나눔, 봉사 문화가 우리 모두를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그는 체험을 통해 터득했다.

적당히 만족, 분수에 맞게 살기

“적당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결같은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사실 적당히 만족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2등을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함께 살아가갈 수 있는 토양이 다져지게 되는 것이다.

하면 1등을 하고 싶고, 100원을 벌면 1,000원이 욕심나고,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재산이든, 돈이든, 인기든 현재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조금 더 가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서 원장은 삶의 기준을 ‘좀더’에서 ‘적당’으로 바꿔보라고 조언한다. 적당이라는 가치관이 주는 선물은 아주 달콤하다. 우선 패배감 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초조하지 않으며 꼭 찬 풍성한 삶이 행복을 안겨준다. 사람이 과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함께 살아가갈 수 있는 토양’이 다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서 원장이 말하는 ‘함께 사는 법’이다.

든든한 지원군, 가족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환자들과 함께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부족하다. 주말까지 반납해 의료봉사를 다니는 남편을 한결같이 이해해주는 아내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그치자 빙그레 웃음을 짓는다.

“2003년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난 날 다짜고짜 아내에게 ‘비위가 좋냐’고 물었죠. 나쁘지 않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같이 갈 곳이 있다며 소망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싫은 내색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이 여자구나’ 싶었죠. 아내 역시 봉사하는 게 모습이 좋아보였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다음해에 결혼했다.

서 원장은 “바빠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데도 이해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의 묘약

‘긍정적인 태도는 기적의 묘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환자보다 긍정적인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생존한 이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인내한 이들이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당시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았다고 한다. 바로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이다.

이처럼 서 원장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고 강조한다. 수줍은 미소를 던지며, 때론 열정 넘치는 어조로 인터뷰 내내 강조했던 건 결국 하나다. 그가 좋아하는 말인 카르페디움(오늘을 특별하게 살라)을 외치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나가자고 말이다.

시골 요양원을 향한 원대한 마음

서 원장의 노후 준비, 미래 계획이 궁금했다. 그는 꼭 병원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재미있는 모델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 노인요양원에 대한 꿈이 그것. 의료시설, 의료진이 정말 필요한 지방에 내려가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다고 얘기한다. 타인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서 원장.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진한 ‘사람’의 향취와 실천적인 봉사자의 진중함이 진하게 배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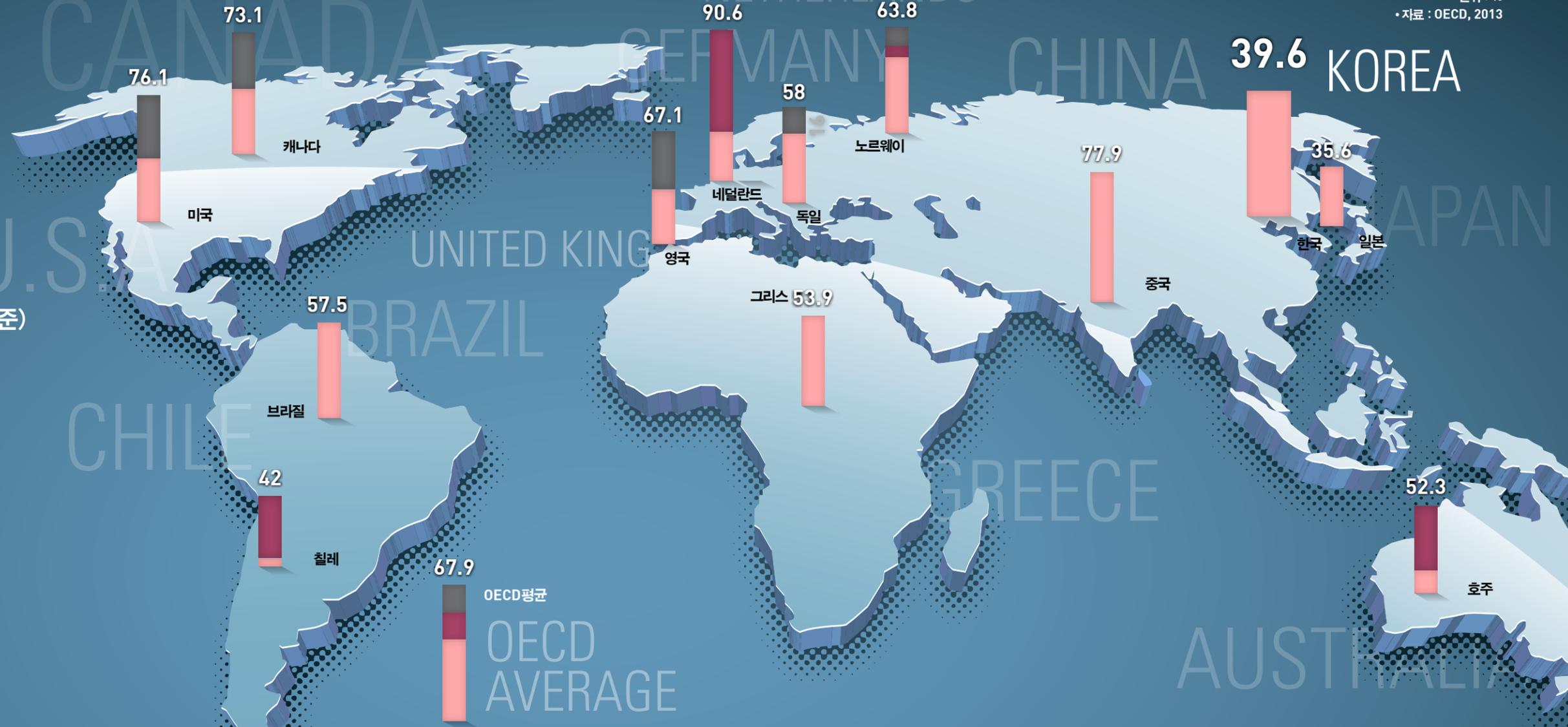
국내 연금 소득대체율 상황

세계은행 등은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70~80% 수준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소득대체율 기준으로 권고수준의 1/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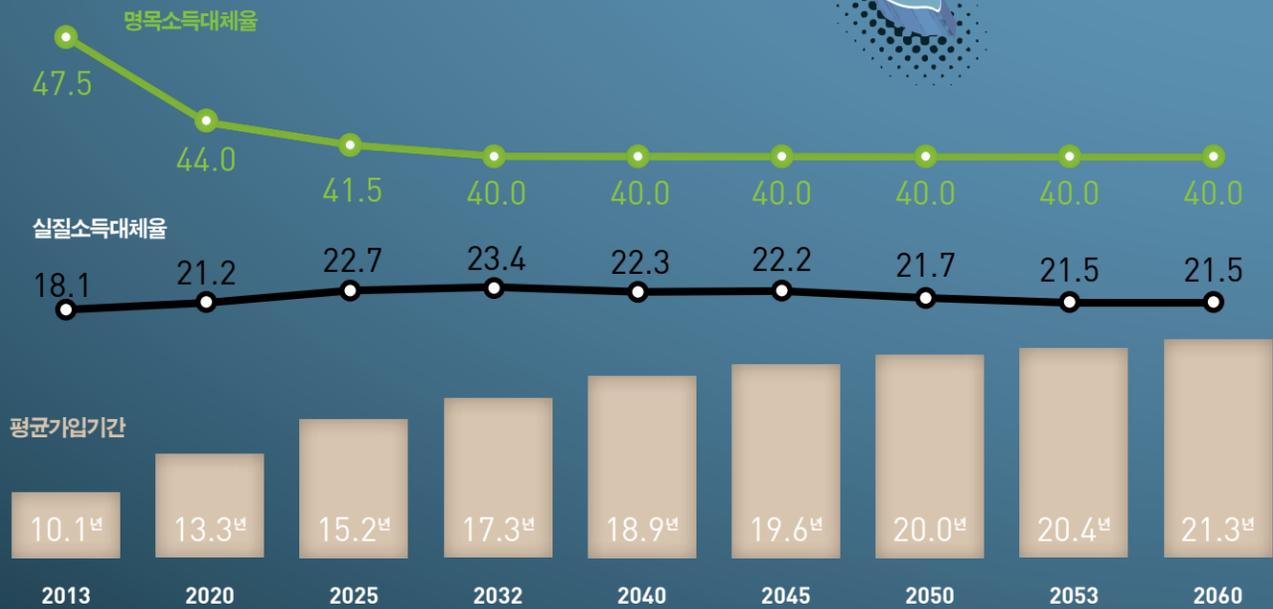
01. 각국의 소득대체율(OECD기준)

- 공적연금
- 의무적사적연금
- 자발적사적연금

•주석 : 공적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강제가입이 요구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이 해당



0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단위 : 년, % •자료 : 연합뉴스, 국민연금

03. 사적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적절한 균형으로 노후설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H씨는
가정주부인 부인,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에 꾸준한 관심으로
꽤 많은 실물자산을 확보한 편이나,
국민연금과 상가소득 외에 이렇다 할
노후 생활비 마련책이 없어 고민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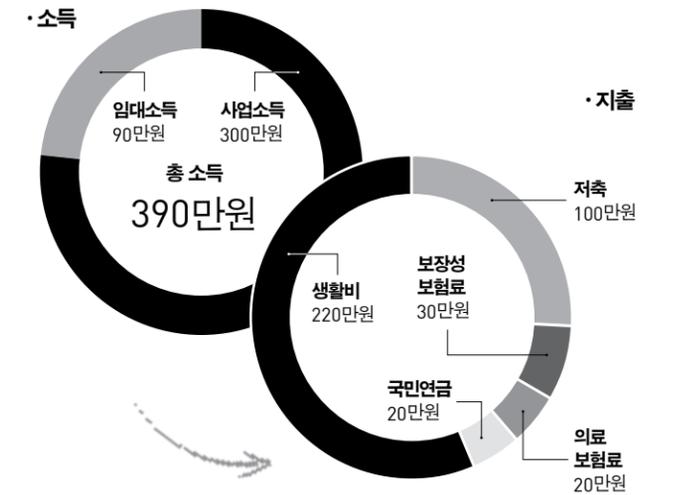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지 걱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H씨(만 58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 직장에 다니고 있다. 현재 H씨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3.8억원 규모의 아파트에 H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2.5억원 규모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다. 또한 2.7억원 규모의 상가는 임대를 통해 월 9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정기예금 5,000만원, 현금성자산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부채로는 아파트와 상가 임대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6,000만원과 개인대출 8,000만원이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300만원과 임대소득 90만원으로 총 39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240만원, 국민연금 20만원, 보장보험료 30만원이 있다. H씨는 그동안 부동산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꽤 많은 실물자산을 확보한 편이나, 국민연금 외에 가입한 연금 상품이 없다. 그리고 은퇴 전후에 들어갈 자녀의 결혼비용(2억원 예상)과 상속,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거주)	3억 8,000만 원
	아파트(임대)	2억 5,000만 원
	상가(임대)	2억 7,000만 원
	정기예금	5,000만 원
	현금성자산	500만 원
· 부채	아파트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상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개인대출	8,000만 원
· 순자산	7억 1,500만 원	



6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40만원을 원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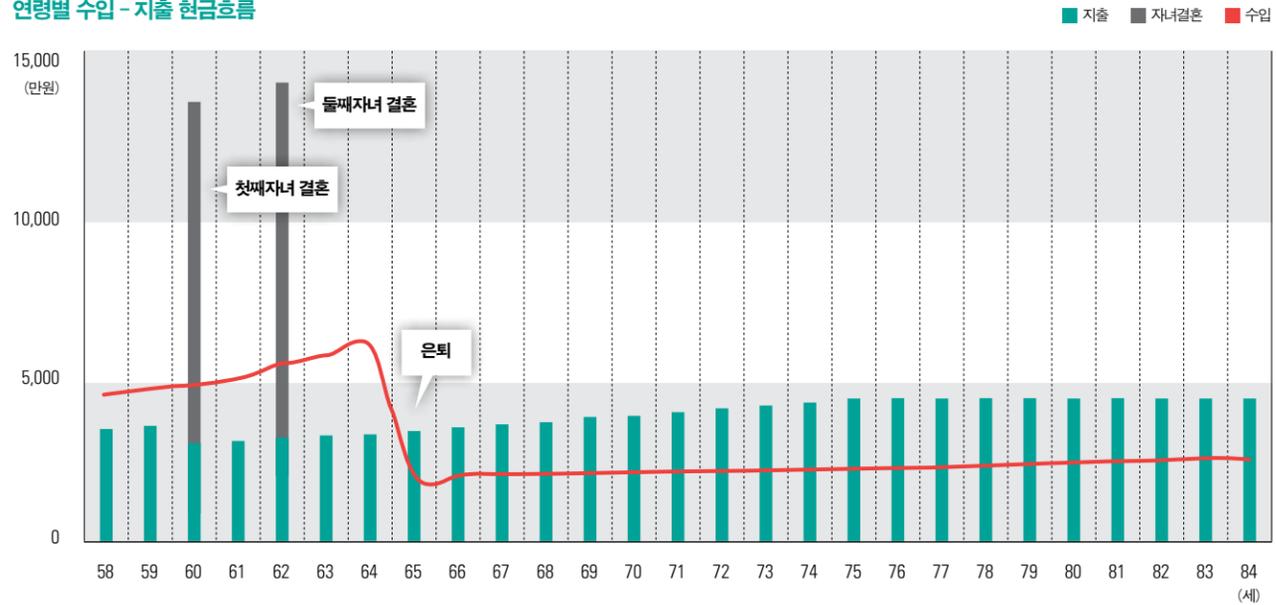
H씨는 은퇴시기를 향후 7년 후인 6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24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가 준비해 놓은 것은 국민연금과 상

가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62세 이후부터 월 67만원¹⁾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 90만원인 상가 임대수익은 향후에도 큰 시세변동이 없는 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은퇴 전 국민연금 수급 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금액이 줄어드는데, 수급 개시 연령에는 70%를 지급하며 연령이 높아지는 매 1년마다 10%를 더하여 지급됨. 본 분석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62세부터 64세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은 67만원보다 낮게 책정하여 적용

우선 H씨의 미래설계 준비 상태를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자녀 결혼비용이 발생하는 60세와 62세를 제외하고 은퇴 직전인 64세까지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나 은퇴 후부터는 지속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한다.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은퇴 직전 자녀 결혼 시기를 제외한 5년 정도인데, 자녀 결혼비용 대비 여유가 많지 않아 은퇴 전에도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까지 모두 합치면 약 3억 1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지나치게 높은 실물자산 비중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

H씨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연금 준비 미흡으로 노후에 불확실한 현금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자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2.5억원의 아파트를 팔고 매각자금을 개인대출(8,000만원) 청산에 사용해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없앨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 2명이 모두 결혼해 분가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를 다소 줄여³⁾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파트 임대보증금과 개인대출 청산 후 남은 자금 3,000만원과 향후 거주 아파트 규모 축소 후 남은 자금 1억원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해 자녀들의 결혼비용과 노후생활에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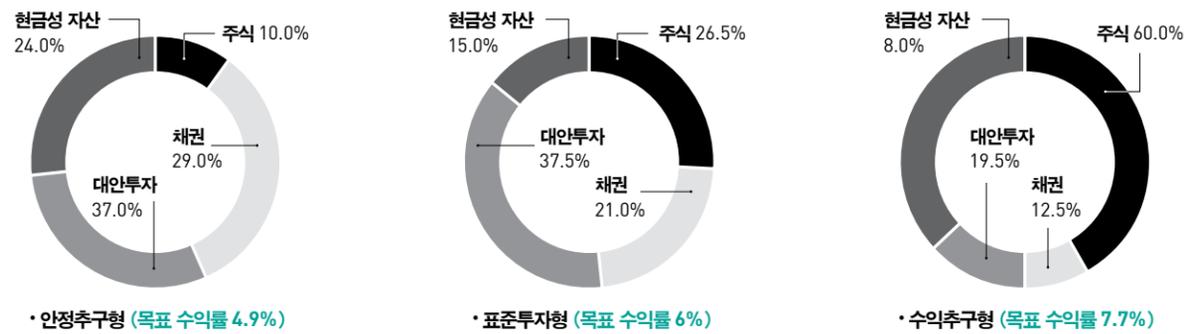
두 번째로 은퇴 후 국민연금과 상가 임대소득 외에 이렇다 할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거주할 2.8억원의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8억원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연금을 활용해 63세부터 수급할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끝난 다음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목표수익률 산정이 필요하다. H씨가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기에금 5,000만원과 현금성 자산 500만원, 향후 발생할 아파트 매각잔금 1억 3,000만원과 추가저축가능 2,400만원이다. 이 금융자산을 2.74%의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월 240만원의 예상 노후생활비와 자녀 2명의 결혼비용을 충당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약 2.5억원⁴⁾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2)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였으며, 수입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연금납입,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3) 둘째 자녀가 결혼한 후인 63세에 3.8억원에서 2.8억원 규모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가정
 4) H씨가 보유하고 있는 2.7억원 규모의 상가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2.5억원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됨

현재 하나대투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2.74%는 안정추구형(4.9%)보다 낮은 수익률로 위험을 크게 감내하지 않아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한편 H씨가 더 높은 위험을 수용할 경우 노후 생활비 또는 자녀 상속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노후 예상 생활비를 24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상속액은 기존 2.5억원 규모를 유지할 경우 목표수익률은 5.09%가 된다. 안정추구형의 목표수익률이 4.9%이고 표준투자형의 목표수익률이 6.0%임을 감안하면 5.09%의 수익률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자녀 상속액을 다소 줄일 경우 목표수익률은 다소 낮아지게 된다. 노후 예상 생활비를 260만원으로 유지하고 자녀 상속액을 2.5억원 규모에서 2억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3.98%까지 낮아지게 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대투증권, "머니TALK", 201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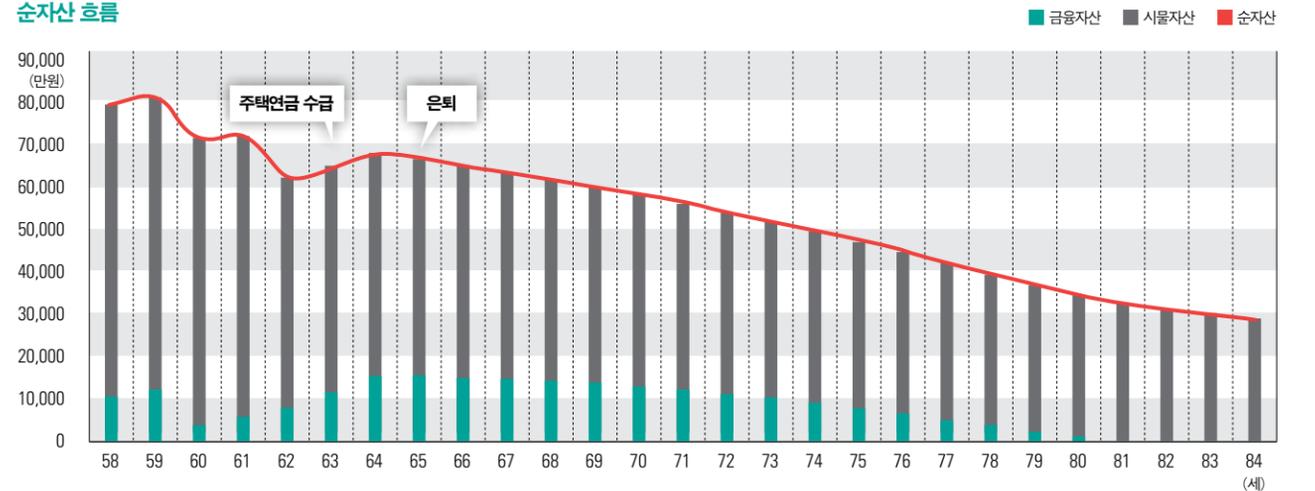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H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한 편이다. 자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아파트 및 상가 매입을 통해 많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상품 가입에 다소 소홀해 국민연금 및 상가 임대소득 외에 이렇다 할 노후 생활비 마련책이 없다는 것

이 문제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의 과도한 보유는 오히려 노후 준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보수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산을 증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순자산 흐름



2015년 상반기 세무 관련 궁금증 VIP 고객이 물어본 여신세금 BEST 4

여신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2015년 상반기 VIP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던 상황별 여신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Q1. 하나은행 VIP 고객인 선택해(가명, 57세) 사장은 최근 사업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가계대출을 받았는데, 가계대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의 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계대출인지, 기업대출인지를 꼼꼼하게 따진다. 하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단지, 해당 대출금액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과세관청에서 바라보는 대출금은 첫째, **사업자와 대출차주가 일치하는지**, 둘째, **차입금이 사업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 특성상 임대개시 후,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Q2. 공동체(가명, 48세) 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소재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이때 공동 구입이 유리할까? 또 공동차주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 유리하다.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임대수입이 분산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신고 때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지분별로 매각대금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증여 플랜 목적으로도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하다. 단독명의 사업자가 대출을 했을 때는 타인 자본의 조달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명의 사업자가 대출을 했을 때는 공동차입금을 자기자본 조달비용으로 보아 관련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대법원 판례(2011두15466, 2011.10.13일)에 따르면,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으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출자가 아닌 **타인자본 조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 등에게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Q3. 담보능력이 없는 부족해(가명, 41세) 씨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부모님의 부동산 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본인이 직접 이자비용을 상환하기로 했다.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까?

지난 대법원 판례(2011두18458, 2013.11.14일)를 살펴보자. 판례에서는 일정기간 자녀에게 담보가치를 사용하도록 하여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한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감안하여, 2015년 2월 3일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자 담보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개정 내용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는 것이다.

$$\text{증여재산가액} = \text{무상사용 재산가액} \times (8.5\% - \text{실제 이자율})$$

개정 내용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새로 담보를 제공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담보제공을 한 거래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된다.

Q4. 부친 부유층(가명, 75세) 씨는 특수관계자인 자녀 부족해(가명, 47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기로 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해줄까?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증여했는지, 대여했는지는 내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예규(심사증여2014-86, 2015.1.20일)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특수관계자 간 차입거래로 인정받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시점에 제3자의 확인(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용거래금액이 1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차용하고 반환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차용거래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계산됨을 주의하자. 만약 이자를 지급했다면,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에 해당되며 자금 대여자는 해당 이자금액만큼을 금융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자비용의 경비인정 기준

이자비용은 경영학에서 나오는 레버리지의 산출물이다. 대출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의 전제에 해당될 것이다. 앞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자비용은 절세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대출금이 언제 누구 이름으로 발생되었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가 경비인정 여부의 핵심이다.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전세계약시 보증금 보호 방법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만큼은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부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세입자가 근저당이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음.

세입자는 계약 체결 전 주택의 등기부를 조사해서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서울에 사는 세입자 A는 올해 초 집주인 B와 보증금 9,0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계약 체결 며칠 전 집주인 B가 C에게 돈을 빌린 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C는 법원에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고 몇 달 후 아파트는 D에게 낙찰되었다. A는 보증금 중 적어도 3,200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세입자에 대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란 세입자가 일정한 전세금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무조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전세금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 체결 시 3,200만원 한도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선순위 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서서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금액의 범위

지역	내용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인천 일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등)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은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보통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매우 싸다. 만약 세입자가 그 집에 잡힌 근저당이 너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라도 전세계약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집주인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전세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31. 선고 2003다50771판결 참조).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체결 전 주택의 등기부를 조사해서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의 경우 세입자 A의 전세계약으로 집주인의 채권자인 C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2014. 6. 13. 선고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판결 참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은퇴설계서비스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때와 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 중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함으로써 가능한 은퇴 전에 필요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은퇴설계서비스는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해 스스로 이러한 은퇴설계를 수행하기 어려운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사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적정노후 자금을 산출한다. 적정 노후 자금은 음식, 주거, 부채원리금 상환 등의 필수 항목과 의복, 차량유지, 일상적 의료비 등의 중요 항목, 그리고 여행 및 여가, 취미활동 등의 선택적 항목으로 구분해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이후 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 재원은 국민연금, 퇴직금 및 개인연금 등의 확정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은 다시 현금, 예금, 보험 등의 고정 소득과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의 변동성 있는 소득으로 나눠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산출한 필요 생활자금과 은퇴 이후 수입을 토대로 부족자금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자금 규모에 따라 현재 연령에서 필요한 저축 금액이 도출되며 예상 은퇴 시기, 기대 수명, 현재 자산 보유 현황 등을 토대로 노후 생활 필요자금과 준비 가능한 자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은퇴설계서비스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폭 넓게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사는 물론 정부부처나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러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매우 드문 편이며 심지어 대다수의 고객이 금융사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은퇴설계가 노후준비의 첫걸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노후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설계 프로세스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대투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 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금저축 고풍액과 퇴직연금 고풍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세액공제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세입 후 12월 말 기준

운용권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5%	- 1억 이하 0.25%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1971.1.1부터 1980.12.31까지 1981.1.1부터 2014.12.31까지 가입대상인 경우 / 13세 이상 65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DB, DC, 기업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세입자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원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퇴직연금에는 예금보통예금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규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3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 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abank.com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대투증권

삶의 활력 UP, 손재주

퇴근 후 가구 공방에서 가구를 제작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재봉틀 앞에서 옷을 만들기도 한다. 소박하지만 만족을 주는 삶, 삶의 활력을 주는 손재주.

바쁜 일상에 지친 회사원 A씨. 순간순간 고비가 찾아온다. '과연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의문들이 들 때면 생각의 수렁에 빠진다. 그렇다고 회사가 싫은 건 아니다. 다만, 뻔한 예정된 미래에 별다른 흥미나 욕망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직장생활에도 작은 행복이 있겠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50~60대가 돼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다양한 취미생활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공예. 어느 교육단체에서 진행되는 클래스에 참여해 가족 제품을 만들어본 게 시작이었다. 가족이 주는 촉감이 무척 좋았고, 소품을 몇 번 만들다 보니 천, 나무, 철 등 다양한 소재와 결합하면 더 재미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기심과 아이디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혼자서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들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가족 공예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소한 손재주는 어느새 그의 즐거운 일이 되었다. 지금은 회사를 은퇴하고 서울 근교 작은 골목에 '공방'을 오픈할 계획에 들떠있다. 덕분에 그는 그토록 꿈꾸던 재미있는 일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살고 있다.

삶의 활력을 찾아주는 손재주

최근 소박하지만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되찾고자 사람들이 '손재주'에 도전하고 있다. 덕분에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근 후 라이프'가 발달하는 추세다. 퇴근 후 가구 공방에서 가구 제작 기술을 취미로 배우고, 천연 비누, 제과 제빵, 의상 제작 등 다양한 손재주에 도전하는 트렌드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좋은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삶의 방식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그 삶을 추구하는 철학 속에는 '좀 더 느리게 느끼게'의 코드가 숨어 있다. 가족을 중시하고, 자신의 소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어찌하면 현대인들이 꿈꾸는 파

라다이스일지도. "처박아 뒀던 CD 플레이어, 망가진 스탠드, 택배 박스 등이 속속 작품으로 재탄생했어요. 대단한 예술도, 돈벌이도 안됐지만, 삶은 점점 풍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살림살이 리폼에 푹 빠져있는 위킴맘 현진(42세)씨의 이야기다. 꽃꽂이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수연(37세)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작한 꽃꽂이에 대한 열정은 어느새 전문 플로리스트 못지않다. "집안에서 작은 화분을 키워요. 음식을 할 때 사용해도 좋고 잎차로 마셔도 좋아요.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는 그것으로 센터피스를 만들어 선물하는데, 자연을 친숙하게 만나는 좋은 방법이지요."

손재주 있는 은퇴자 소득수준 높다

일본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60세가 넘는 일본인들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니 손재주가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졸 학력의 은퇴자들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반면 고졸 학력의 은퇴자들은 오히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학력의 은퇴자에 비해 고졸 학력의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손재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대졸 학력의 은퇴자들은 사무직종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맞게 된다. 때문에 별다른 전문기술이나 손재

주가 없는 탓에 정년퇴직 후 일을 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의 은퇴자들은 은퇴이전의 직장생활이 사무직보다는 제조, 생산직 또는 서비스, 기술직에 종사했던 탓에 은퇴 연령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해 더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손재주는 지금 당장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하고, 은퇴 후 '밥벌이'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삶에 대한 애착, 느긋한 여유,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하다.

평범한 손재주에 날개를 달다 '수공예 교육기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세상인 만큼 수공예 기술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우리 주변에 많다. 유튜브, 블로그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체계적으로 수공예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검증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한국문화센터(www.hanc.co.kr)**

섬유예술, 전통침선, 꽃, 미용 등 생활과 문화 부분에 특화된 강좌가 많다.

• **풀임문화센터(www.pul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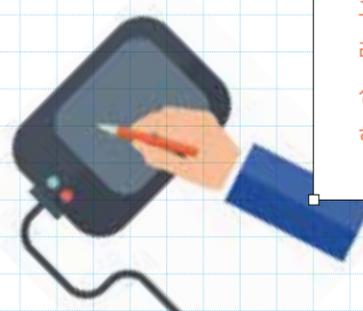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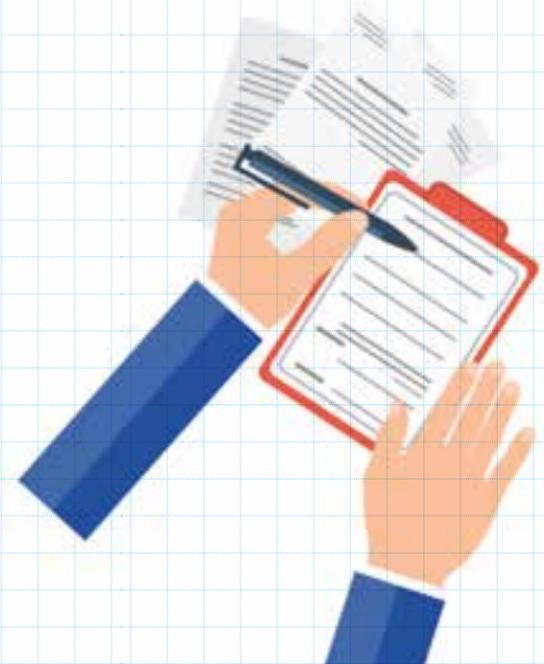
규방 공예, 서양 장수, 손뜨개, 천연 비누, DIY가구, 가족 공예, 도예 등 140여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홈패션, 의상제작, 컴퓨터 기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되어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 경기지역산학협력단(www.hrdknou.co.kr)**

의류제작 및 수선실무, 홈패션 및 생활소품 등이 있다.



명상으로 마음 챙기기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근력' 키우는 방법. 혼자 조용히 앉아 몸을 편안히 한 후 호흡에 집중하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우리 앞이나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하찮은 것들임을 비로소 깨달게 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진정한 나에게 이르는 길, 명상으로 마음 챙기기.

회사원 김형기(47)씨는 일주일에 최소 두 차례 이상 명상을 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방법은 정좌로 앉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이 전부다. 호흡이 드나들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관찰하다보면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게 된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면 포기해야 할 것들과 우선순위로 할 것들이 구분된다”며 “내면의 중심을 잡기 위해 걸가지를 쳐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의 경지는 비움에서 온다. 그는 “학문의 세계는 날로 쌓여가는 것이지만 도의 세계는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이라는 노자의 말처럼 생에서 굳어터거리를 줄이고 본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명상을 통해 마음 다스리기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고프게 살라. 모자라게 살라(Stay Hungry! Stay Foolish!)'고 했던 스티브 잡스는 명상에 심취하면서 아이폰 등 혁신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조용한 시간 갖기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의식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도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사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기계, 라디오, 휴대폰 등 북적거리는 세상에서 간혹 조용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와도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열린 텔레비전을 켜고, 자동차에 잠시 앉아 있을 때도 라디오를 켜기 바쁘다. 심지어 산책을 나갈 때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 그러나 이때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함을 즐길 필요가 있다.

느긋하고 청명한 마음 상태, 명상하기

하버드대, 보스턴대의 연구에 따르면, 날마다 명상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명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 주 동안 꾸준히 명상을 하면 근심과 연결된 뇌의 영역은 줄어들고, 감정 및 기억과 연관된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몇 개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와 일반인 2,600여명을 대상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마음챙김 명상'과 항우울제 치료에 따라 재발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2년 안에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은 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한 그룹(44%)이 항우울제를 복용한 그룹(48%)과 차이가 많지 않았다.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재빨리 도입하고 나섰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명상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차드 멩 탄은 명상 방법에 대해 “가부좌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별별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주의이탈상태”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주의이탈상태에 빠지면 잘못된 명상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호흡에 집중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또 “이탈된 주의를 다시 되돌려 세우고, 방황하는 주의력을 붙잡아올 때마다 우리의 주의력 근육은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베트남 선사 탁낫한의 말처럼 “자신의 의식을 지금의 현실에서 살아있도록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인식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명상은 자신의 행동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느긋하고 청명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데 유익하다. 실내 명상도 좋지만 야외에서 명상을 즐기는 것도 좋다.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체육관에서 운동했을 때보다 야외에서 운동했을 때 정신적 효과가 50%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바깥으로 나가 천천히 걷거나, 눈에 보이는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집중하면 빠르게 평안을 찾을 수 있다.

2분 동안 쉽게 마음챙기는 법

- **2분 앉아있기** 그냥 2분 동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의 의도는 '행위'에서 '존재'로의 전환이다.
- **2분 호흡주시하기** 2분 간 앉은 상태로 자신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시해보자. 자신이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숨 쉬는 과정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러다 주의가 딴 곳으로 갈 때 마다 그냥 부드럽게 원 위치 시키면 된다.

출처 :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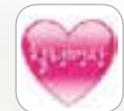
특독힐링 참 좋은 글
책이나 영화, 명언 한마디로 소소한 일상 속 마음의 힐링을 얻는다.



숲, 산림 사운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등 소리로 치유한다.



힐링 다이어리
매일 나에게 편지를 쓰며 나를 되돌아본다.



힐링 명상
힐링 명상, 힐링 요가, 힐링 음악, 강의를 통해 손쉽게 명상한다.



자연의 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개구리 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휴식한다.



‘일상과 여행 사이’에서 방황할 때, 캠핑을 떠난다

일상은 답답하고, 여행은 부담스러울 때 떠나는 게 캠핑이다.

캠핑(Camping)은 텐트나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도시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자연이 그리울 때 우리는 캠핑을 떠난다.



혼자여도
괜찮아

그래, 혼자여도 괜찮다. 아무에게도 내 기분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때로는 혼자라서 더 좋은 게 바로 캠핑이다. 텐트는 자연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른 일요일 아침,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으로 홀로 스몰캠핑을 나선다. 축령산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지만 깊은 계곡과 뽕뽕한 잣나무숲은 강원도 깊은 산속을 느끼게 해준다. 야영데크를 현장에서 4,000원에 예약하고 잣나무 숲속에 텐트를 친다. 고요한 자연 속에 누우니 후박나무 꽃향기와 잣나무 숲 향기가 새소리와 어우러져 자연 속에 녹아들게 한다.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잠시 오수에 빠져든다. 체온으로 따뜻해진 침낭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게으름을 피워본다. 살짝 해가 기울었을 즈음 책 한권을 배낭에서 꺼낸다. 평소부터 읽어보고 싶었지만 바쁜 일상 탓에 제대로 읽지 못한 책이다. 커피도 한잔 달달하게 끓여 훌쩍이며 책을 읽는 시간, 혼자여서 더 행복한 시간이다.



함께하면,
더 좋아

토요일 새벽, 아내와 함께 백패킹(backpacking)을 위해 배낭을 꾸린다. 캠핑장 예약의 번거로움과 체력을 소모하는 많은 짐, 텐트를 쳤다가 걷을 때의 힘겨움을 수년 간 경험한 후로 우리 부부는 가볍게 배낭 하나로 떠나는 캠핑인 백패킹을 선택했다. 아이가 없는 만큼 선택의 자유는 있었다. 백패킹은 1박 이상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떠나는 등짐여행을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인 터라 주중에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지만,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백패킹을 다닌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다. 가방 하나에 모든 짐을 담아야 하다 보니, 산행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필요한 것이 줄어든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점점 비우게 되는 것, 백패킹을 하며 삶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배낭을 비울수록 선택의 자유는 커진다.

처음 산을 오를 때 무겁게 느껴지던 배낭은 어느 순간 몸과 하나가 된다. 정상 즈음에 다다르자 마치 구름 위를 산책하는 기분이다. 적당히 평평한 초원 위에 하룻밤을 묵기로 한다. 둘이 함께 텐트를 치고, 오붓한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아이스팩에 싸온 캔맥주가 아직 시원하다. 은은한 랜턴을 켜놓고 맥주와 안주를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운다. 침낭을 펼쳐 포근히 함께 눕는다. 풀벌레 우는 소리, 바람 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졸음이 눈꺼풀을 밀어낼 즈음 랜턴을 끄고 잠이 든다.

혹시 일출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스마트폰으로 일출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지만 햇살이 눈부시게 눈꺼풀을 밀어낼 무렵, 잠에서 깬다. 눈은 떠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침낭 안에서 이리저리 뒤굴다 기분 좋게 기상했다. 텐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아침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든다. 다시 야영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한 야영장에서 코펠에 밥을 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도 끓인다. 단출한 밥상이지만 산 속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다.



Tip

백패킹(backpacking) 주의사항	숙박 & 취사 가능한 캠핑장소 추천
1.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유명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 031-589-5487
2. 물이 범람하거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요소 근처는 피한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 031-592-0681
3. 50분 걷고 10분 쉬기를 실천한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충남 태안 041-674-5019
4. 작은 짐이나 액세서리 등을 가방에 달지 않는다.	서곡 오토캠핑장 충남 천안 041-560-0352
5. 국립, 도립공원이나 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취사와 야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당 관청에 연락을 하여 야영이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허용되지 않는다면 인화물질은 집에 두고 가야 한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충북 괴산 043-833-7994
흡연은 조금 참고, 식사의 경우도 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락이나 떡 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한다. 또 뜨거운 요리가 필요하다면	방태산 자연휴양림 강원도 인제 033-463-8590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오거나 불 없이 조리 가능한 발열제를 이용해 조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태산 자연휴양림 강원도 횡성 033-343-9707
6. 모닥불을 피우지 않는다.	삼봉 자연휴양림 강원도 홍천 033-435-8536
7. LNT(Leave No Trace) 실천, 흔적을 남기지 말라.	양양 오토캠핑장 강원도 양양 033-672-3702
	망상 오토캠핑장 강원도 동해 033-534-3110
	오대산 소금강 야영장 강원도 평창 033-332-6417

고령화에 따른 대만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변화 및 시사점



최근 인구의 고령화 등 국내 경제는 다양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변화를 먼저 경험한 대만의 가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2.7%에서 2030년 2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른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뿐 아니라 동시에 저성장·저금리라는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계의 소득, 저축률,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가계의 자산 구성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 변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로 대만을 꼽을 수 있다. 한때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일컬어지던 대만은 국내보다 조금 빠른 1993년 고령화 사회(한국 2000년)에 진입했고, 2015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국 2017년)되고 있다.

국가별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는 경제 및 금융환경, 산업구조, 가계별 투자성향, 금융자산 규모, 금융시장 및 제도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와 유사한 환경 변화를 미리 경험한 대만 가계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국, 대만 주요 지표 비교

	한국	대만
총 인구(만 명)	5,042	2,337
생산가능인구(만 명)	3,671	1,733
GDP(억\$)	1조 4,495	5,055
1인당 소득(\$)	28,739	21,572
경제성장률(%)	3.3	3.7
CPI 상승률(%)	1.3	1.2
GDP 대비 가계 금융자산 규모(%)	195.5	464.4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 규모(%)	80.3	167.4
실업률(%)	3.5	3.9
노령화지수	83.3	80.5
가계 금융자산(비중, 원)	2,474조 원 (34.1%)	57조 대만달러 (55.5%,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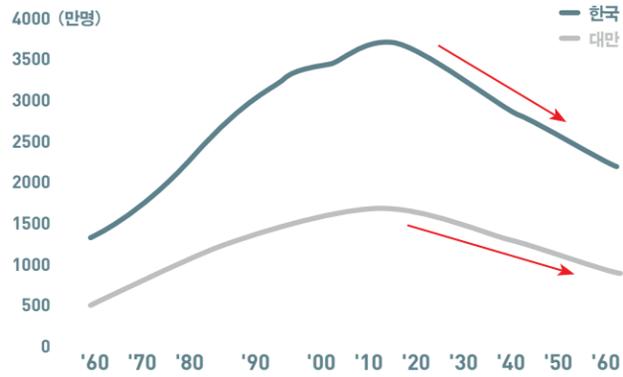
주1 : 가계 금융자산은 각국 2012년 국민 대차대조표 기준
 주2 : 인구 및 노령화지수, 대만의 GDP 대비 가계 금융자산 규모는 2013년 기준, 그 외 2014년 기준
 주3 :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
 자료 : 각국 중앙은행, 통계청, IMF

대만은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높지 않아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순저축률이 높은 편

대만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저성장·저금리 상황에 진입해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3.1%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기준 정책금리는 1.875%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1.75%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성장·저금리로 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지출 또한 이와 비슷한 속도로 둔화되고 있어 2013년 말 기준 20.6%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계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사한 환경에서 2014년 말 기준 가계 저축률이 6.1%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저축성향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높은 가계 저축률을 보이는 것은 대만 가계의 성향에 기인한다. 대만 가계의 경우 소비성향이 높지 않고, 금융자산 축적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GDP 대비 가계 금융자산 규모를 살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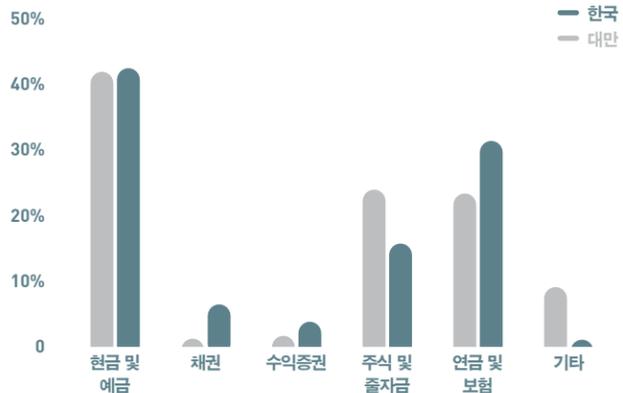
면, 대만은 464.4%(2013년)로 한국의 195.5%(2014년)의 약 2.4배이며 이는 일본의 332.9%(2014년)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대만 가계의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점유하는 비중은 실물자산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대만 가계 전체의 자산 규모는 102.6조 대만달러인데, 이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이 약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자산 비중이 53.1%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1%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꽤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수 추이 및 전망



자료 : 각국 통계청

대만, 한국의 금융자산 구성



주 : 대만의 경우 기타부분 중 64.6%를 해외투자가 차지

자료 : 한국은행

대만 가계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유한 가운데, 고령화로 보험·연금 자산 비중 증가

그렇다면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 가계의 금융 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2013년 말 기준 안전자산(현금, 예금) 비중 42.0%, 투자자산(주식 및 출자금, 채권, 펀드, 해외투자 등) 비중 31.5%, 보험·연금자산 비중 23.3%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이전까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가계 금융자산을 적극 투자해 주식, 펀드 등의 투자자산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였으나, 버블이 붕괴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험·연금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가 안전자산 42.4%, 보험·연금자산 31.3%, 투자자산 25.8%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만의 투자자산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포트폴리오는 주식 및 출자금의 직접 투자 중심이며, 해외 투자 비중도 높은 편

2014년 말 기준 대만 주식시장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개인 비중이 37.5%로 가장 높다. 대만 투자자들은 직접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가계 투자자산 중 주식·출자금의 직접투자비중은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경제구조 특성상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기업이 많아 출자금 비중도 높은 측면이 있다. 한편 특징적인 것으로는 투자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이 18.4%로 높다는 것이다. 가계의 해외투자 비중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대만 국가 전체의 역외펀드 발달과 함께 가계의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큰 편이다. 대만의 개인 투자자는 단기 이익을 중요시하고 투자 자금을 자국에 보

유하기보다는 해외로 활발히 투자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펀드 상품의 평균 보유 기간이 3~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약 5%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 펀드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국내 뮤추얼펀드보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채권형 펀드의 인기가 높았으며, 동 상품에 대한 불이전에는 주로 단기간 동안 비교적 중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는 꾸준히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활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 가계의 노후는 비교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지난 2013년 글로벌 운용사인 맨유라이프자산운용(Manulife Asset Management)의 아시아 지역 고령층의 은퇴준비와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일본과 함께 은퇴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자산 중심의 금융 자산 축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여유 자금 축적이 잘 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고령인구 경제참가율

은 8%로 한국의 31%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은 서구와 유사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채택해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13%로 한국의 3% 대비 높은 편이다. 한편 고령층 가계의 전체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대만 64%, 한국 23%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유사한 것으로는 대만도 높아지는 가계 자산을 저축성 자산인 생명보험에 축적하고 있고, 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가계는 장기적으로 낮은 수익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국내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은 여전히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고령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보험·연금, 현금·예금자산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 향후 저성장, 저금리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에 축적된 가계 자산으로부터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민감도가 증대되며 이는 개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에 기반 한 시중 자금흐름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자산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 및 리스크가 클 수 있어 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자산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해외 투자펀드가 투자지역의 쏠림, 투자시계의 단기화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경향이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장기 해외투자가 필요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적절한 투자 상품도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에는 저성장 시대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상품이 개발되고 이에 적합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의 경우에도 금융자산 축적 및 노후 준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는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해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2015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의 흐름은?

글로벌 경제의 상반기 기상도는 흐림이다. 미국 및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경제도 주택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지그재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 국내 경제 흐름은 어떨까? '맑음'을 기록할 수 있을까? 글로벌 주요 변수, 국내경제 전망 및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해

2015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완화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ECB는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했으며,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유동성 공급을 통한 자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반면 미(美) 연준은 '인내(Patience)'라는 단어를 FOMC 성명서에서 제외하면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과 여타국의 통화정책 차이는 미(美) 달러화 강세로 연결되었다. 특히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디플레이션 및 그리스의 그렉시트(Grexit)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1.05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ECB의 양적완화 실시와 유로화 약세,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독일 국채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상반기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5월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과 국제유가 반등, 일부 펀드의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유로존 금리가 금등세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기도 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세계경제의 대대 축인 미국과 중국경제가 각각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기업실적 악화와 1/4분기의 흑한 피해, 부동산경기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 등으로 인한 생산 및 투자 둔화세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ECB 양적완화, 유로화 약세 및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 등으로 유로존 경기가 반등에 성공하고, 일본도 엔화약세, 기업수익 증가 및 투자심리 개선과 소비세율 인상의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었다.

선진국 및 신흥국 Economic Surprise index 비교



국내경제는 주택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지그재그 행보 지속

국내경제는 단통법 충격 및 세수부족 등의 일회용 충격이 사라지고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작년 4/4분기의 성장률 소크(0.3% 성장, QoQ)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저금리 장기화 및 주택거래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KOSPI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실제소비 회복이 제한되고 국제교역 부진과 중국경기 둔화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성장에 가속이 붙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담뱃값 인상(CPI 0.6%p 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급락(CPI 1.0%p 하락 효과)과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 부재 등으로 0%대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성장에 대한 높이를 낮추고 구조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한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경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변수는 미(美) 달러화의 향방과 중국의 구조조정 진행여부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변수는 미(美) 달러화의 향방이다. 다수의 FOMC 위원들은 미국경기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인상은 빨라야 9월에 이뤄질 것이며, 금리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매우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리인상이 지연되고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경우 달러화 강세도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반기 미국경제의 부진이 상당부분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기업실적 악화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지연 및 달러화 강세 완화는 미국경기의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유로존 경기의 뚜렷한 회복의 배경에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회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되더라도 유로존의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도 또 다른 변수다. 정책당국의 의지(?)에 힘입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이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내성(Tolerance)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책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으로 중국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경제는 수출부진과 세입결손으로 인한 정부지출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

하반기 국내경제는 유가하락과 금리인하로 인한 구매력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와 주택거래량 확대 등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가로 내수의 경기 기여가 높아지면서 전년동기대비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2015년 연간 성장률은 2.8% 예상). 반면 수출이 중국 등 신흥국의 부진과 수입구조 변화, 그리고 원/엔 환율 하락 등으

로 역성장이 예상되고 올해에도 대규모 세입결손으로 인한 정부지출 부진이 예상되는 것은 부정적이다.

민간소비는 금리인하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과 전세가격 급등과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효과로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과 빠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의 개선은 순환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정책당국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저유가·저금리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투자수요 발생이 예상되지만,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석유화학·철강 등의 유희설비 부담,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행태 및 해외투자 선호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훈풍과 건설수주 확대 등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4/4분기에도 세수부족에 따른 SOC 투자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과 수입구조 변화, 석유류 수출가격 하락, 그리고 원/엔 환율 하락 등으로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이 국제유가 하락과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더욱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하락 등으로 0%대 상승률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4/4분기에 들어서면 유가하락의 기저효과와 내수개선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결손과 추경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

2012년 이후 국세수입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세입결손 금액도 2012년 2.8조원에서 2014년 10.9조원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세수입이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을 악화시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성장을 하락으로 다음해 세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올해에도 실질성장률 하향조정과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당초 정부예상(6.1%)에 비해 경상성장률이 2%p 이상 둔화되면서 올해에도 대규모 세입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 경상성장률이 1%p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8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당초 예상 세수부족 규모: 3.4조원)이다. 실제로 1/4분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22.7%로 사상최대의 '세수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1/4분기(22.5%)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저성장에 적응할 것인지,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일 것인지 선택해야

올해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는지, 2%대로 떨어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0.7%(전기대비)에 그치고 있다. 연율로 계산하면 이미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평균 2%대 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인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 빠른 인구 고령화, 투자심리 부진, 세계교역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에 대한 높이를 낮추고 구조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한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위상, '준(準) 안전자산'의 명암

최근들어 국내 금융시장을 일종의 '준(準)안전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처럼 대외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면역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준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 변화에 따른 수혜 못지않게, 그 뒤에 숨겨진 그늘(저성장의 늪)이나 은폐된 위험(내파의 위험)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내의 금융시장 향방에 대해 우려와 열광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출구전략 모색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해 주요국 증시도 수년래 최고치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국채금리 급반등을 계기로 이러한 열광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사실 세계 주요국의 연이은 유동성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자산시장만 버블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출구전략 본격화와 맞물려 세계 중앙은행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결국 국제 금융시장도 실물경제 부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거치게 될지 모른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부동산 시장도 지루한 조정을 일단락 짓고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도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상화에 내몰리면서 또다시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개선에 주목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대외신인도의 실시간 척도인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최근 45bp로 떨어지며 2007년말 이후 최저치로 내려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700bp까지 치솟던 모습과는 천양지차다.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우리 정부의 달러화 표시 국채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부도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인데, 그 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부도위험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외국인 자금유입도 양호한 흐름이다. 이미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9조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의 국내 상장채권(국채 위주) 순투자도 4조원 이상에 이른다. 나아가 무디스나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연이어 우리나라의 신용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가장 먼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작은 데다 해외 수출에 대한 의존성이 큰 속성 탓이다.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환금성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투기 공략 과정에서 사실상 '현금인출기(ATM)'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미국 등의 주요국은 물론

신흥시장 주변국의 소소한 동요마저도 우리에게 늘 심각한 악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실제로 2013년 버냉키발(發) 쇼크, 즉 이른바 '긴축발작(Taper Tantrum)' 시기만 해도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이 고조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일시 충격을 받고 도리어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러시아 외환위기 등 간헐적으로 신흥시장 불안이 이어졌지만, 별 충격이 되지는 못했다.

당시에 주요한 논거는 '차별화'였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여느 신흥시장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기제는 바로 외환건전성 향상이었다. 대규모 경상흑자가 이어지는 데다 수차례에 걸친 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외채 축소, 자본 유출입 규제 강화 등 외환 부문의 건전성이 뚜렷이 개선된 덕분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여건이나 각종 거시건전성 규제의 적극적인 도입 등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제는 신흥시장 중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가하거나, 이에 선진시장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이미 선진시장으로 격상되었고, 주식 시장 역시 세계 최대 주가지수인 MSCI에서 선진시장 편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별도의 주가지수인 FTSE에서는 이미 선진시장으로 편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나 성장 모멘텀의

소실 등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부채 슈퍼사이클'의 붕괴와 맞물려 이른바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장기불황은 어쩌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경제의 행로에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 법칙일지 모른다.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준안전자산'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일종의 '준(準)안전자산'으로 간주하는 행태도 포착된다. 과거처럼 대외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면역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서방 선진국(일본을 포함)이 독점해 온 전통적인 '안전자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느 신흥시장처럼 '고위험 자산'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선진국의 초저금리 기조가 일반화 되어 왔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공세적 양적완화에 힘입어 단기물 국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국채 등의 전통적인 안전자산들은 상당한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국채금리 급반등에서 확인되듯이, 이런 기조의 지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결국 독일을 비롯해 선진국 국채의 투자손실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가.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그간의 '무위험 수익'(Risk-Free Return) 자산에서 이제는 '무수익 위험'(Return-Free Risk) 자산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시 말해 그동안 선진국 국채 등의 안전자산은 부도 위험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수익은 없는데 투

한국의 CDS 프리미엄과 원/달러 환율



자 위험만 커진 셈이다.

이처럼 전통적 안전자산의 위상 변화는 이제 대안 자산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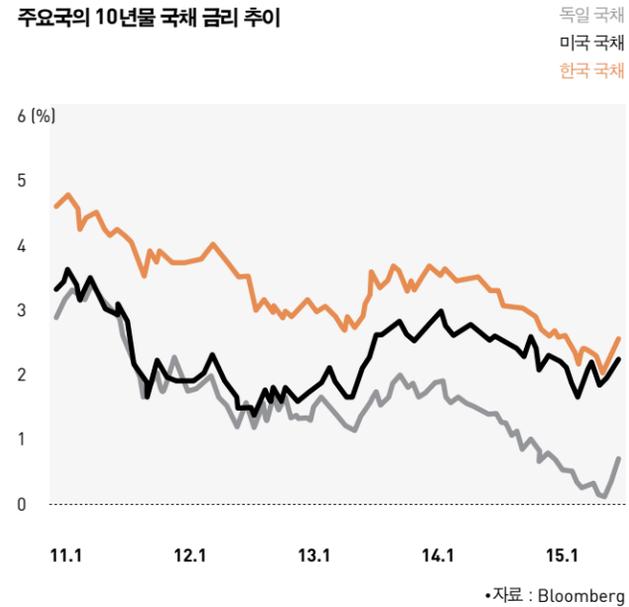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쟁점화되어 왔다.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권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진 데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주로 국채 매수)로 인해 국채가 시장에서 사실상 퇴장된 결과다. 반면, 남유럽 재정위기를 매개로 부각된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은 국채 공급을 위축시켰다.

따라서 전통적 안전자산의 수급 불균형을 메워줄 대안 자산, 즉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다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선진국 국채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투자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준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혹은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은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한다. 신흥시장의 고유한 위험과 거리를 두는 한편, 전통적 안전자산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말이다. 지금 안전자산이 수급불균형과 저수익률의 높은 투자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면, 본래 신흥시장 자산은 외채 상환능력의 결여에 따른 이른바 '원죄'의 부담이 크다.

물론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붐('글로벌 유동성 제2국면')의 막바지와 맞물려 상대적 수익률 게임의 기승과 같은 국제 금융의 변덕

주요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스러운 속성에 우리 금융시장이 언제라도 다시 휘둘릴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맞선 완충력으로서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의 제고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성과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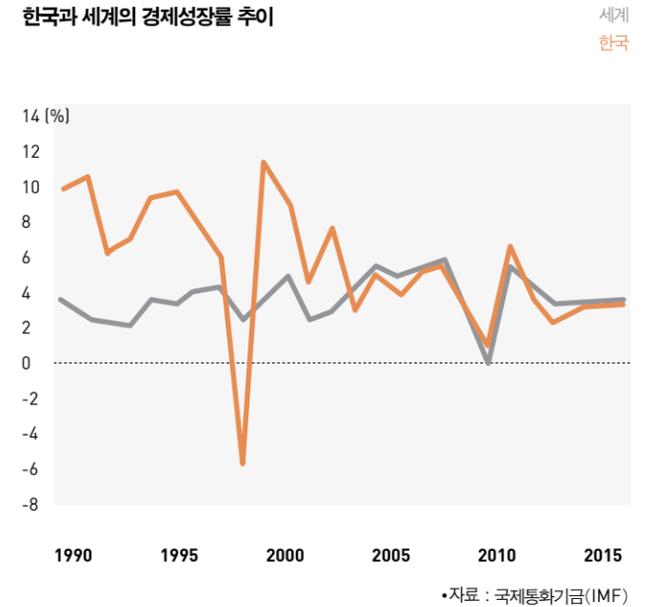
준안전자산의 명암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렇다고 과거 외환위기 직전처럼 또 다시 선진국 진입을 자축할, 거품만 가득 낀 삼페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의 위기들처럼, 우리의 대외 지불능력 혹은 대외신인도가 더 이상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오히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 출구전략을 필두로 엔화 약세나 그리스 위기 등 각종 대외 악재에 여전히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이다.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데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이 생생한 처지에 달리 방도는 없다. 하지만 과도한 '원죄' 의식이 우리의 일상을 옥죄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에 엮매인 렌즈를 끼면 처방도 퇴행적이기 마련이다. 고환율이 나 부동산 부양책이 단적인 예다. 엔저나 환율전쟁 우려, 중국발 경쟁력 위협 등과 맞물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나 가계부채 문제와 결부된 내수 악화 등 고민이 많지만, 이처럼 과거 지향적인 정책들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나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등의 대가 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한국과 세계의 경제성장률 추이



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나 성장 모멘텀의 소실 등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부채 슈퍼사이클'의 붕괴와 맞물려 이른바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장기불황은 어쩌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경제의 행로에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 법칙일지 모른다. 다행히 우리에게서 일본식 경로의 기폭제인 버블 붕괴라는 고리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수출이나 부동산 일변도의 경기부양 노력은 자칫 이런 누락 고리의 복원, 특히 내부 불균형의 폭발과 같은 '내파(Impllosion)'의 위험을 환기시킨다.

사실 일본의 장기불황은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자산의 위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준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 변화에 따른 수혜 못지않게, 그 그늘(저성장주의 늪)이나 은폐된 위험(내파의 위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준안전자산의 명암(明暗)과 맞물린 국내 경제 및 자본시장의 새로운 동학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금리 시대의 투자대안, 오피스텔 사도 될까?



최근 수년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조정이 이어지면서 주춤했던 오피스텔 투자수요는 예금금리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금리시대에 진입하면서 다시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 아파트 전세의 월세전환, 투자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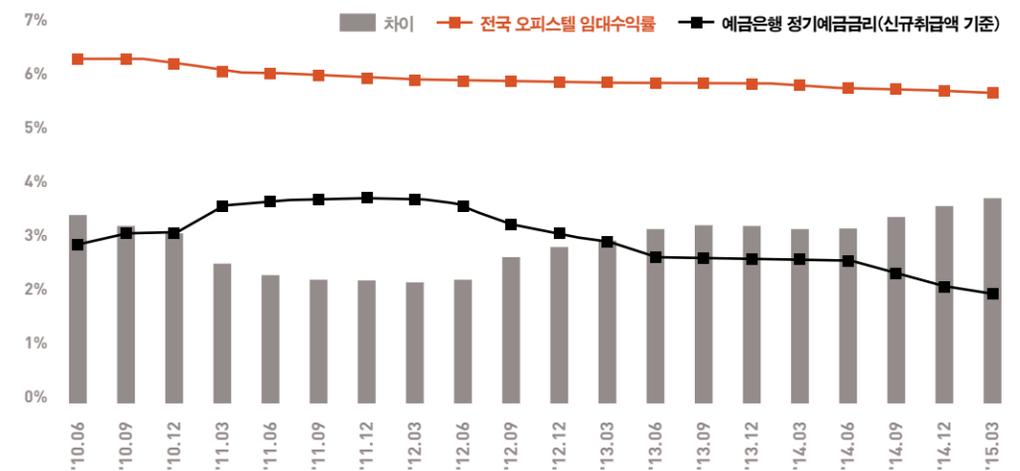
오랜 하락기를 접고, 반등에 성공한 오피스텔 매매가격

2015년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2%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써,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부동산114).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임차수요 확대와 은퇴 이후 소득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투자가 맞물려,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2011년까지 매년 3% 내외의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신규 분양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른바 공급과잉을 초래했고, 이는 곧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연평균 분양물량 '06~'10년 6,673호→'11~'14년 40,599호). 게다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발표로 투자자들 사이에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피스텔 매매가격 하락세는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금리인하 영향으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 부각된 탓

이렇듯 3년여에 걸친 가격하락세가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시중금리 하락의 영향이 크다. 통상 오피스텔은 은행예금과 함께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려는 가계 니즈에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여겨져 왔다. 월세보다 전세가 보편적인 주택임대차 관행과 연금자산 보유가 충분치 않은 탓에, 가계 입장에서 비교적 소액 투자로 매월 임대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가 은퇴이후 생활자금 마련에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조정이 이어지면서 주춤했던 오피스텔 투자수요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예금금리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금리시대에 본격 진입한 탓이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에 비해 하락폭이 미미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과 예금금리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0.20%p 하락했던 최근 3년 간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무려 1.73%p 하락했다). 더욱이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금리 인하는 매입자금의 일부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 초과수익률(투자금액 대비 이자비용 차감 후 순소득 비율) 달성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과 예금금리 간 격차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세 전환된 소형아파트와 임차인유치 경쟁 불가피

한편 신규분양 증가세가 지난 2013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분양과 입주 시점 사이에 통상 2년여 시차를 감안하면, 입주물량 역시 금년 하반기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점진적인 공급과잉 해소가 예상된다.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미땅찮은 국내 상황에서 은퇴인구 증가와 맞물린 예금금리 하락은 향후 오피스텔 매매 가격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능케 한다. 다만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 저금리가 촉발한 주택시장의 또 다른 변화, 아파트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최근 아파트 전세의 월세(혹은 반전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오피스텔과 임차인 확보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소형아파트의 월세전환 비중은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오피스텔을 선호했던 임차수요의 이탈이 불가피하므로 투자지역 선정 시 소형아파트와의 대체관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투자에 앞서 저금리가 촉발한 주택시장의 또 다른 변화,

아파트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최근 아파트 전세의 월세(혹은 반전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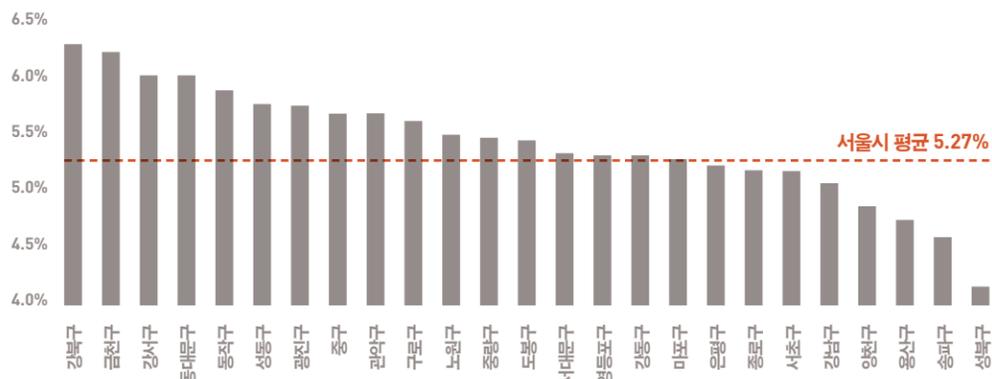
특히 오피스텔과 임차인 확보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소형아파트의 월세전환 비중은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임대수익률 차별화에도 유의해야

또한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투자지역 선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자치구별 임대수익률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격차는 2%p를 넘어서고, 수도권 내 격차도 4%p나고 있다. 오피스텔의 주타깃층인 소형가구의 특성상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의 범위는 제한적인 반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가령 수도권 52개 시군구 가운데 임대수익률(2015.4월 기준, 부동산114)이 가장 높은 시흥시(8.05%)의 경우 전용 25m2 내외의 오피스텔 월세가 약 40만원 수준인데, 매매가격이 2배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 월세는 60만원 선으로 임대수익률이 4.58%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매매가격 변동성이 크게 낮아진 주택시장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매매차익보다 임대소득에 주안점을 둔 오피스텔 투자는 지역별 임대수익률 차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어느 것을 먼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필요한 돈**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시 암 발생률 3명중 1명
(통계청)
뇌혈관질환 진료환자 50대 이후 8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부부 월 137만원
개인 월 83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제4차보고서 2014년)

돌려 받고, 보장 받고, 가족 선물 Plan이 가능한



Top3

건강보험(보장성)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C브렌드-150127-42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15-057호

지구인이야기 - 프랑스

건강·여행·테크놀로지 즐기는 프랑스 시니어

프랑스의 고령층은 소외계층이 아닌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시니어 전시회’는 최신 실버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박람회다. 올해 가장 핫 트렌드는 ‘Aging well’ 즉, 멋있게 나이들기다.

또한 여행과 뉴테크놀로지도 노령층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은퇴 후에는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복지국가다. 그 연금 수령액도 월급이 가장 높았던 때의 70~8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은퇴는 인생2막의 시작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의 시니어들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세대인 만큼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은퇴를 기다린다고 한다.

프랑스는 2010년 이후부터 20세 미만 인구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멋있게 나이들기’ 위한 정보포털 인기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시니어 전시회’는 1998년부터 시작돼 2015년 17회째를 맞았다. 최신 실버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박람회다. 올해는 약 250여개 업체가 참가했고, 60개의 컨퍼런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약 4만4,000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방문객의 연령대는 55~70세로 평균 62세 정도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핫 트렌드는 ‘Aging well’ 즉, 멋있게 나이들기다. 어느 나라나 멋있게 나이를 먹는 것은 관심이 높은 추세지만, 특히 패션과 화장품 등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답게 노년층의 뷰티관련 소비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로레알 등 화장품 브랜드들은 나이든 모델들이 당당하게 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뷰티 관련 모니터원으로 은퇴자들이 활약도 두드러진다. 은퇴 소비자를 겨냥한 월간지 등의 잡지도 활성화돼 있다. 은퇴포털사이트(www.seniorplanet.fr)는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는 프랑스 은퇴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시니어산업 핫 트렌드

박람회를 살펴보면 시니어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여행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다. 시니어 전문 인터넷 여행사 ‘Vacances Bleus’ 관계자에 따르면 동 여행사는 1972년 프랑스 은퇴기금(Caisse de Retraite)과 협력하여 은퇴 고령층 전문 여행사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3세대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 여행상품은 프랑스 베이비붐 세대인 60~70세 고령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트레비앙 메르씨(Tres bien merci!) 측은 ‘간편함, 영양균형, 맛’ 이 세 가지가 시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말한다. 세계 최고 프랑스 요리사로 선정됐던 조엘 로부송(Joel Robuchon) 셰프가 제안한 레시피를 이용한 건강식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뉴 테크놀로지(Nouvelle Technologie)관이 따로 마련돼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전자제품들이 전시됐다. 프랑스 스마트 보청기를 제조하는 ReSound사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과 연동되는 보청기 제품을 선보였으며,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운전 가이드나 화상 전화 시 도움을 주는 기능까지 포함한 스마트 보청기를 선보여 많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의 고령층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아닌 새로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프랑스 내 사물인터넷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로봇 연구기관들은 실버케어 로봇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실버케어 로봇 시장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료 : 파리 시니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salondesseniors.com), KOTRA 파리 무역관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다!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특히 책을 쓰는 과정에서 겪는 몰입에의 황홀경은 쓰는 동안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의 노하우가 담긴 자기개발서, 엉뚱한 상상 속 환타지 소설, 인문학적 향기 가득한 인문서적,

여행에세이 등 누구보다도 멋지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여는 나만의 책쓰는 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인 마거릿 미첼. 무명인 그녀가 3년 동안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처음엔 하찮은 원고봉치에 불과했다. 당연히 출판인들에게도 외면당했다. 끈질긴 노력과 구애 끝에 한 출판인의 마음을 움직여 원고의 첫 장을 넘기게 만들었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주부에서 작가로 변신한 현진희씨. 전업주부이던 그녀는 이제 여러 권의 요리책을 집필한 작가로 유명하다. 평소 자신 있던 요리를 자신만의 탁월한 콘텐츠로 만들어 책쓰기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처럼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다만 책을 쓰겠다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끈기, 강한 확신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인생을 글로 치유하는 법'의 비바라 에버크롬비는 "글쓰는 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라. 문을 닫고 바깥세상과 교류를 끊어라. 그래봐야 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엇 써야 하나 고민할 뿐이라도 괜찮다. 그게 바로 작가가 하는 일이다"라고 조언한다.

만약 자기만의 시간, 공간이 없다면 거실 한 켠 조그마한 식탁 위도 좋다.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은 독립된 서재도 없이 공동의 거실에서 온갖 종류의 일상적인 방해로 받으며 '오만과 편견'을 썼다.

일단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순수한 글쓰기 연습법

배껴쓰기

책을 읽다가 명문장이나 감동적인 문장은 노트에다 배껴 써보라. 소설도 좋고 신문도 좋다. 다양한 문장 표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문장 분석하며 읽기

문장을 분석하며 읽기 훈련은 문법적인 부분을 비롯해 문장을 조합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상상하며 쓰기

무엇이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마치 내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며 스스로를 동기부여해 보자.

책쓰기 3단계

1단계. 기획하기

어떤 책을 쓸 것인지 방향 정하기, 장르 정하기, 목차 만들기, 출간계획서 만들기

2단계. 집필하기

목차에 따른 자료 조사 및 원고 쓰기, 다듬기

3단계. 출판하기

출간 제안서 쓰기, 출판사 정하기, 책 홍보하기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K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카드